

CT  
284.2233  
77657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의 신학적 의미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evelopment and its  
Theological Meaning of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cclesiastical Discipline.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專攻

金 相 鎬

 고신대학교



DM00008261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의 신학적 의미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evelopment and its  
Theological Meaning of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cclesiastical Discipline.

指導 金永奎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M.Div.)論文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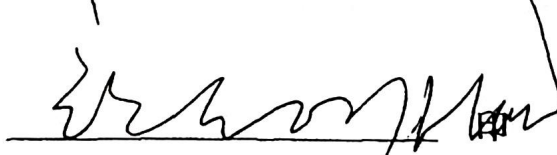
金 相 鎬

이 論文을 金相鎬의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06년 12월

審査委員長 이은구 

審査委員  

審査委員 

審査委員 김성기 

## 감사의 글

“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 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세상에 글을 내놓는 다는 것이 단지 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을 깊이 상고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는 구절이 되었는데,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마다 묵상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갖게한 말씀이라서 서두에 적어 봅니다.

늘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논문이 나오기까지 가르침을 허락하신 김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요 교수로서 목사후보생으로서의 부족을 일깨워주시며 일관된 마음으로 묵묵히 지도해주신 리영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과 고민을 함께 해주신 이승철 목사님과 남경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생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과 그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때마다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강승완 교수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편집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최정숙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조언해 주신 광영교회 정용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형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목 차

I. 서 론 .....	3
A. 문제제기 .....	3
B. 연구 방향 .....	6
II. 본 론 .....	7
A.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배경 .....	7
1. 박해받는 복음주의 자 .....	8
2.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저항 .....	9
2.1. 교부들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	10
2.2.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저항 .....	12
2.3.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자들에 대한 저항 .....	13
2.4. 눈과 귀를 막는 자들에 대한 저항 .....	14
B. 칼빈의 권징론의 신학적 의미 .....	15
1. 칼빈의 교회에 대한 엄밀한 정의 .....	15
2.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 .....	16
3.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지 .....	17
4. 참된 교회의 표지들과 권징 .....	18
4.1. 교회 표지로서의 말씀 .....	20
4.2. 교회 표지로서의 성례 .....	20
4.3. 교회의 표지로서의 기도 .....	21

4.4. 교회의 표지로서의 권징 .....	21
C. 칼빈의 권징의 내용 .....	22
1. 권징의 목적 .....	23
2. 공통적인 권징 .....	25
2.1. 열쇠의 권한 안에서의 권징 .....	25
2.2. 열쇠의 권한 밖에서의 권징 .....	27
2.2.1. 권징으로서의 금식 .....	27
2.2.2. 권징으로서의 금식과 기도 .....	29
2.2.3. 권징으로서의 금식과 회개 .....	29
2.3. 권징의 시행 .....	30
2.3.1. 온건한 권징 시행 .....	30
2.3.2. 교회 권징에 따른 우리 판단의 한계 .....	31
3. 특별한 권징 .....	32
4. 성경적 이해 .....	33
4.1.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성도를 보호 .....	33
4.2. 죄인의 회개와 구원 .....	35
III. 결 론 .....	37
참 고 문 헌 .....	39

## I. 서 론

### A. 문제제기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많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시대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했던 때와 같이 적어도 현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sup>1)</sup>

칼빈에 의하면 택한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지들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sup>2)</sup>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표지가 강조되거나 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 알 수가 있다.

인간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쉽고, 나쁜 행실을 볼 경우 우리도 바른 생활을 떠나 다른 데로 끌려갈 확률이 높고, 요소가 많으며 가기가 아주 쉽다. 사도가 근친 상간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사람에게 있는 이런 경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sup>. 이에 대하

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p. 145.

2) Ibid.

여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sup>4)</sup> 라고 증거하고 있다.

칼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정과 출교<sup>5)</sup>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름을 빼앗을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치욕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수치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올바른 인도를 받거나 교회의 결정에 따라 격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그래서 만약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바른 생활을 떠나 있다면 자기에 대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을

3) Ibid., p. 283.

4) 고린도전서 5: 11(한글개역)

5) 출교(excommunication)란 공공연한 음행자들, 간음자들, 도둑들, 살인자들, 수전노들, 탐욕자들, 사악한 자들, 싸움꾼들, 포식자들, 술취한 자들, 선동자들, 낭비하는 자들이 혼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내어 쫓는 판결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영원한 멸망과 절망 속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행위를 책망하는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정죄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수치를 주는 부정한 구성원에 의해 교회가 더럽혀지고 비방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의 악한 자들과 교제함으로써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 징벌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목인을 받는다며 더욱 완고해지지만 할 것인데, 수치를 당하게 되면 회개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친교를 나누며, 그들이 배제되었던 그 하나 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판결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신자들의 판결에 의해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그러한 판결이 하나님 자신의 판결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신자들이 땅에서 행한 것이 하늘에서 인준된다고 증거 하신다. 이는 신자들이 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민, 「기독교 강요 분석 II」(도서출판 아카데미, 2005), p. 906.

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김종흠 외 3명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86), p. 282.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자기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훈련을 해야 함이 당연하며, 교회의 표지에 맞게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엄격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권징이 교회의 표지<sup>8)</sup>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라 볼 때에 잘못된 것에 겁내지 않고 바르게 고치고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요 교회의 성도로서 빛나간 자들이 다시 올바른 성도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sup>9)</sup>

칼빈 시대에서의 그 상황에 맞게 역사적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하여 시대에 저항하고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한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고찰하고 칼빈의 교회 권징론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7) Loc. cit.

8) Ibid., p. 145.

9) Ibid., p. 283.

## B. 연구 방향

지금까지 권징에 대한 논문이 몇 가지 나와 있다. 그러나 그런 논문들은 권징의 원리보다는 실천에 중심을 두며 권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표지로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교회의 표지로 권징을 바라보고 바른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사상에 맞는 권징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며 칼빈이 활동했던 시대에서 권징론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본 논문의 주제를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배경과 그 신학적 의미'로 정했다.

그렇게 정한 본 논문의 주제를 고찰해 나감에 있어서 권징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마음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우선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 어떤 배경 하에서 권징을 말하며, 그 원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권징론의 내용을 교회의 열쇠의 권한과 관련하여 설명한 후 성경구절을 살펴 성경적 해석의 이해를 갖는 순서로 본 논문을 고찰할 것이다.

## II. 본 론

### A. 칼빈의 권징론의 시대적 배경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 즉, 프랑스에서 프란시스 왕이 즉위하던 시대에 칼빈은 그에게 쓴 기독교강요의 헌사 부분에서 그 시대의 불공정하고 어두웠던 면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칼빈의 활동 목적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sup>10)</sup>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지식의 깊이가 얕아서 기본적인 것에도 못 미치고, 올바른 교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환경도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칼빈은 말한다.<sup>11)</sup>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로 칼빈은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격노가 당신(프란시스 왕)의 영토에서 너무나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에 전전한 교리가 발 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sup>12)</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타락하고 부도덕하여 공정한 판결이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올

10) Loc cit., 「기독교 강요 초판」, p. 45.

11) Loc cit..

12) Loc cit..

바른 검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편견들로 이루어지고, 만약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판결하는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직무를 외면한 상태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참된 경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일을 한다면 가치 있는 일"<sup>14)</sup>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칼빈과 같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 1. 박해받는 복음주의 자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득세하여 그리스도의 진리가 추방되고 흩어져서 비록 소멸되지 않았을 지라도 여전히 가려져 있고 묻혀져 있으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sup>15)</sup>고 말한다. 그래서 "가련한 교회는 잔인한 살육에 의해 피폐되거나 혹은 추방을 당해 유배중에 있거나 혹은 협박과 공갈에 압도당하여 감히 입도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sup>16)</sup>이라고 한다. 복음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핍박하는 자들을 피

---

13) Ibid., pp. 46-7.

14) Ibid., p. 45.

15) Ibid., p. 47.

16) Loc.cit.

하여 도망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을 상황이지만 칼빈은 단호히 “교리는 기가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에 우뚝 솟아야만 한다”고<sup>17)</sup> 피력한다. 또한 칼빈은 복음 주의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미덕이 전혀 없는 벌거숭이이며, 하나님에 의해 채움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으며, 그분에 의해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죄의 종들이며, 그분에 의해 비침을 얻기 위해 눈먼 자이며 그분에 의해 교정을 받기 위해 절름발이이며, 그분에 의해 지탱되기 위해 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sup>18)</sup>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절대주권이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겨 그렇게 전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sup>19)</sup> 이런 소망이 있기에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이고, 곤장도 맞기도하며 조롱과 때론 추방을 당하며 도망다녀야만 하기도 했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sup>20)</sup>

## 2.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저항

칼빈에 의하면 그 당시 박해하는 자들은 “올바른 교리에 대하여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고 온갖 이유를 붙여 올바른 교리가 아닌 증오와 의

---

17) Ibid., p. 48.

18) Ibid., p. 49.

19) Ibid.

20) Ibid.

심이 대상<sup>21)</sup>이 되도록 맹공격을 하고, 참된 예배로부터 허망한데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미혹들<sup>22)</sup>을 자신들의 주장에 뒷받침하며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경건 때문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던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우리가 그것을 찾았으므로 그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sup>23)</sup>이고, 복음은 또한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정해 주고 있는 진리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sup>24)</sup>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교부들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박해자들의 부족함이 잘 드러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1. 교부들의 주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박해하는 자들이 교부들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몇 가지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교부들의 올바른 뜻을 증거로 자신들을 정당성을 회복하려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으로 사치스럽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해자들에 대

---

21) Ibid., p. 52.

22) Ibid., p. 54.

23) Ibid., pp. 52-3.

24) Ibid.

하여 “우리 하나님은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시며 따라서 쟁반도 컵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sup>25)</sup>라고 말한 것을 증거로 이 한계를 넘은 그들을 비평한 것이다.

둘째로, 사순절에 고기를 먹은 사람을 저주하는 박해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삼가는 날에 자기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다.”<sup>26)</sup>고 말한 것도 교부중에 한 사람이기에 이 한계를 넘은 그들을 비평한 것이다.

셋째로, 박해하는 자들이 교회에 형상을 새겨 곳곳에 형상이 보이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새긴 형상을 보는 것은 몹서리 칠 끔찍한 일이다.”<sup>27)</sup>고 말한 것도 한 교부 엮기에 이 한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을 비평한 것이다.

넷째로, 성찬식에 대하여 박해자들은 진짜 몸이 성찬식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하여 교부가운데 한 분이 말한 “진짜 몸이 성찬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비가 그러하다”<sup>28)</sup>고 말한 것을 증거로 박해자들의 오류를 밝힌다.

다섯째로, 교회 성직자들의 결혼에 대하여 박해자들은 강력하게 독신을

---

25) Ibid., p. 56.

26) Ibid.

27) Ibid.

28) Ibid.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교회의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순결이다”<sup>29)</sup>고 말한것도 교부중 한 사람이기에 박해자들이 이 한계를 뛰어 넘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박해자들의 부당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이 없을 만큼 많은 진리에 반대되는 관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많은 오해와 괘시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청종되고 준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들의 최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확신하는 소망을 두는 가운데, 그들의 뜻에 저항하며 올바른 교리를 전하기에 온 힘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 2.2.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저항

칼빈에 의하면 “확실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 왔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한 살아있을 것이며, 교회는 그의 손에 지탱되며 그의 보호로 무장하고 그의 능력으로 강화된다.”<sup>31)</sup>고 하였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한정 시킬 수 없는 한계에 교회를 두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여기에는 복음증거자

29) Ibid., p. 57.

30) Ibid., pp. 58-9.

31) Ibid., p. 59.



들의 교회가 어떤 가건의 외형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외형은 외적 장엄함으로 담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전파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교회의 외형적인 형태라<sup>32)</sup>는 것을 강조하며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외적 사치와 헛된 자랑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논박하는 것이다.

### 2.3.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자들에 대한 저항

박해자들은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소란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sup>33)</sup> 그러나 그러한 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활동하는 사탄의 악으로 돌려져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34)</sup> 사탄은 재세례파나 다른 악한 것들을 통하여 교리적 논쟁을 일으켜 진리를 희석시키고 결국은 말살시키려 했던 것이다.<sup>35)</sup> 그렇게 복음증거자들을 향해 모든 소란과 다툼과 소요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지도자 되신 주님께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sup>36)</sup>고 말한다. 이처럼 복음 증거자들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강력한 방어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자들

32) Ibid., p. 60.

33) Ibid., p. 63.

34) Ibid.

35) Ibid.

36) Ibid.

을 겸허히 수용하는 가운데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7)</sup>

#### 2.4. 눈과 귀를 막는 자들에 대한 저항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이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한다던가, 방탕한 죄악들을 거침없이 저지른다<sup>38)</sup>는 등의 거짓을 왕에게 고함으로써 박해자들의 중상모략을 감추고 왕의 눈과 귀를 막아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데 왕의 권한과 세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음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증거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때가 되는 날에 그들을 멸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 전파에 집중하여 감당하는 때였음을 알 수 있다.

---

37) Loc.cit.

38) Ibid., p. 66.

## B. 칼빈의 권정론의 신학적 의미

### 1. 칼빈의 교회에 대한 엄밀한 정의

그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선택받은 자의 전체의 수로 천사들이나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지 이들 모두는 한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정의 되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한 몸의 머리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고 정의 되어 있다.<sup>39)</sup>

여기에서 교회가 한 교회 한 사회로 표현되어있지만은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 전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로 정의 되어 있고, 또한 아직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도 동시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단순히 교회가 공교회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로 정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

39) Op.cit., 「기독교 강요 초판」, p. 139.

실 때 그것들이 목적이 되었어도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작정하셨던 영원한 선택의 결과요 열매이며, 그것의 선포<sup>40)</sup>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으며, 이 독특한 내용은 칼빈의 권징론에 있어서 열쇠의 권한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

그런 엄밀한 교회의 시작은 세상 전에 하나님의 뜻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칼빈의 말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 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고 하였다.<sup>41)</sup>

여기에서 누가 택자 인지, 정죄 받은 자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sup>42)</sup>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버린 자요, 희망이 없이 포기해 버린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생명의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반면에 남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던 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sup>43)</sup>는

---

40) Ibid., p.140.

41) Ibid., p.141.

42) Ibid., p.143.

43) Loc.cit.

것은 “인간은 매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에 대해 경고 받고 있다”<sup>44)</sup>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보전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다.”<sup>45)</sup>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로서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지가 그것이다.

### 3.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지

칼빈은 “택한 자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알려지기를 원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을 유기되고 소외된 자들로부터 우리가 구별하는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성경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고백을 통해서나 생활의 모범 또는 성례전에의 참여, 사랑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지체들로 유익된 자들로 볼 수 있다”<sup>46)</sup>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도덕 생활 속에 불완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자기들의 악행을 지나치게 찬동하거나 자랑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택자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sup>47)</sup>라고 하였다.

---

44) Loc.cit.

45) Loc.cit.

46) Ibid.

47) Loc.cit.

이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 아래 더 나은 길로 발전해 갈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불완전을 떨쳐 버리고 택함 받은 자의 영원한 복락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48)</sup>

반면에 “위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나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며 자기들의 악함을 전혀 개의치 않고, 평생 동안을 사악하게 살고, 죄의 탐용에 취해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타내는 조짐들을 통해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sup>49)</sup>고 칼빈은 말 했다.

이와 같이 확실히 드러나는 표지를 보고 우리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짓으로 꾸미고, 마음대로 죄지음으로 인해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을 본받아 함께 범죄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길로 오도록 교회에서 그들을 신자들의 회중에서 끊쳐지고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sup>50)</sup>

#### 4. 참된 교회의 표지들과 권징

---

48) Ibid., p.144.

49) Loc.cit.

50) Ibid.

교회의 본질을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하였다. 칼빈의 교회의 정의와 구원의 서정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과에 택자들과 그 섭리의 수단까지 함께 결정되었다는 것이 정통개혁주의의 일반적인 이해가 되었다.<sup>51)</sup> 그리고 이미 성취된 구원에 있어서 그 수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부터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택한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sup>52)</sup>고 하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앙의 고백과 생활의 모범 또는 성례전에 참여를 통해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판단에 의해서 택자들과 교회의 지체들로 여겨야 한다.”<sup>53)</sup>고 하였다. 반면에 앞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는 입술로는 고백하나 그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조짐들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sup>54)</sup>며 출교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함임을 드러내었다.

---

5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IV」,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p. 36.

52) Op.cit., p. 143.

53) Ibid., p. 144.

54) Ibid.

#### 4.1. 교회 표지로서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하고자 주어졌으며 이 성경은 모든 택자들에게 보편적 가치로 그들의 모국어로 주셨을 때 신앙과 생활의 규범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은혜로 깨닫게 됨으로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보전하며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 살수 있도록 교회는 무엇보다 더 진리의 보존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55)

#### 4.2. 교회 표지로서의 성례

성례의 기능은 말씀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굳고 확실하고 그 스스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더 확증을 받을 수 없기는 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요동하기 쉬우므로 은혜의 외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서 있어도 여기에 성례를 첨가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뜻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였다. 그렇게 주님은 공훈과 그의 선한 뜻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그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

55) 남경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의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이다.<sup>56)</sup>

#### 4.3. 교회의 표지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외에 기도를 은혜의 수단 즉, 교회의 표지로서 첨가시킨 곳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제14장<sup>57)</sup>)와 그 대요리문답(제 154문<sup>58)</sup>)과 소요리문답(제 88문<sup>59)</sup>)에서 이다.<sup>60)</sup> 개혁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달리 기도가 교회의 표지로 나타난 것은 퓨리탄 신학자들의 경건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1)</sup>

#### 4.4. 교회의 표지로서의 권징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

---

56) Ibid., p. 41.

57) “믿음의 은사도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여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G.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옮김, (개혁주의신앙협회 1980), p. 158.

58) “문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증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증보의 혜택을 자기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보통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 Idem., 「소요리 문답강해」, 최덕성 옮김, (개혁주의신앙협회 1978), p. 430.

59) Ibid. p. 292.

60) Idem., 김영규, p. 41.

61) Loc.cit.

량의 판단”이란 표현에 의해 권징이 그 표지로서 종합되고 있다.<sup>62)</sup>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권면의 대상이자 출교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타락한 삶이 전이 되지 않게 하려함인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칼빈은 “징계할 사람들을 당분간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되 성경적 규칙을 잘 따라야 할 것이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내던져진 자들인 것처럼 다룸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여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정죄된 것이 매우 확실하지 않는 한 그들 중 누구라도 택한 자의 수로부터 제외된 것처럼, 또는 이미 버려진 자인 것처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sup>63)</sup>이라고 하였고, “이미 정죄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자들은, 확고한 목적과 굳은 악의를 품고 진리를 공격하거나, 복음을 압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죄하였다”<sup>64)</sup>고 하였다.

칼빈은 이와 같이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교회의 지표로서 권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성경에 근거한 접근을 통하여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5)</sup>

---

62) Ibid. p. 143.

63) Op.cit. 「기독교강요 초판」, pp. 144-5.

64) Ibid.

65) Ibid.

## C. 칼빈의 권징의 내용

칼빈은 권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으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한 시정책<sup>66)</sup>이라고 표현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권징론은 대개 열쇠의 권한<sup>67)</sup>과 영적 재판권<sup>68)</sup>에 의존하는데, 이 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성직자와 일반 신자로 계층을 나누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공통적인 권징과 성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권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69)</sup>

### 1. 권징의 목적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첫째로, 부패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66) Idem., 「기독교강요 하」, p.279.

67)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한을 사람이 아닌 말씀에 주셨다. Ibid., p. 258.

68) Ibid., p. 281.

69) Ibid., p. 278.

교회가 부패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며 수치를 씻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축출해내려는 것이다. 또한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제공하여 성찬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성찬을 분배하는 자는 참가하는 자가 큰 세상적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찬 참여에 합당치 않다면 돌려보내어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죄를 범치 않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sup>70)</sup>

둘째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함께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악한 행실을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데로 끌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다. 사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sup>71)</sup>라며 근친 상간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sup>72)</sup>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에게 있는 이런 경향을 알고 말했을 것이다.<sup>73)</sup>

셋째로, 부패한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악행에 대하여 악한 처벌을 받고 더 반발할 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아 각성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sup>74)</sup> 이에 대하여 사도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

70) Ibid., p. 282.

71) 개역한글판, 고린도전서 5장 6절.

72) Ibid., 5장 11절.

73) Op.cit., 「기독교강요 하」, p. 283.

74) Loc.cit.

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75)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를 임시로 정죄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76)

## 2. 공통적인 권징

권징의 대상이 사회적 직위가 높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교회의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하는 엄숙성과 그 재판권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77)

### 2.1. 열쇠의 권한 안에서의 권징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설명 할 뿐만 아니

---

75) Op.cit.,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76) Op.cit., p. 283.

77) Ibid., pp. 285-6.

라, 그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성의가 부족하다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와 수단까지도 있다. 그래야만 목사의 교훈에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sup>78)</sup> 이런 충고를 거부 할 경우에는 증인들 앞에서 다시 충고하고, 그 이후에는 장로회에 불러 공적인 권위로 엄중히 충고하여 굴복시킨 후 교회에 순종하게 하거나, 신자 공동체에서 제거하여 그리스도의 명령<sup>79)</sup>을 수행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사적인 은밀한 허물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공적인 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sup>80)</sup>라고 말씀 하셨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올바른 행동 절차로서 비밀스런 죄를 시정할 때는 앞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절차로 밟아야 하며, 공중이 다 알게 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즉시 엄숙하게 책망해야 한다<sup>81)</sup>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구별해야 한다. 가벼운 죄일 경우에는 충고로써도 가능하나, 그 죄가 크고 무거운 경우에는 충고와 견책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대책으로 출교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죄를 처벌하는 교회의 영적 재판권이 교회의 건전성의 지주가 되고, 질서의 기초와 단결의 유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82)</sup> 이렇게 교회가 불손한 자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인데, 이런 판단을 떨치하

78) Ibid., p. 280.

79) Op.cit.,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80) Ibid., 디모데전서 5장 20절.

81) Op.cit., pp. 280-1.

82) Ibid., p. 281.

거나 신자들의 투표에 의한 이 정죄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선고를 발표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교회가 이 땅에서 한 일은 하늘에서도 확인 된다고 선언 하셨으며, 그리고 만약 죄인이 교회가 만족할 정도로 주어진 징벌을 지키고 회개하면 안수하여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셨다.<sup>83)</sup>

## 2.2. 열쇠의 권한 밖에서의 권징

목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신자들에게 금식이나 엄숙한 간구 및 그 밖의 행동으로 겸손과 회개와 신앙을 나타내기로 권고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대한 때와 방법과 형식을 교회의 판단에 일임된 것을 말한다.<sup>84)</sup>

신앙에 관한 논쟁이나 종교회의 그리고 교회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나 주의 진노의 심판으로 보이는 징후 등이 생겼을 때 목사는 공적 금식과 특별 기도를 권고하는 것이 거룩한 규정으로 전해 왔고 모든 시대에 유익을 주는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sup>85)</sup>

### 2.2.1. 권징으로서의 금식

---

83) Loc.cit.

84) Ibid., p. 292.

85) Ibid.

금식은 단지 음식을 억제하며 절제하는 것 외에 일평생을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금식에 가깝게 사는 것과, 하루 동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다소 줄이며, 식사를 더 엄격히 제한하여 조절하는 임시적인 금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sup>86)</sup>

이러한 금식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단지 부차적인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 되어야하고,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위로 착각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금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위선적인 금식은 불필요할뿐만 아니라 가장 가증한 짓이 되는 것이다.<sup>87)</sup> 그리고 금식을 과도히 찬양하는 것 역시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심으로서 복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교훈이란 것을 증명하시려고 행하셨던 금식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미신적인 금식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은 그릇된 열성이 되는 것이다.<sup>88)</sup>

이와 반대로 합당하고 성결한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육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둘째로, 기도와 거룩한 명상을 위해서 이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로서 이다.<sup>89)</sup>

---

86) Ibid., p. 296.

87) Ibid., p. 297.

88) Ibid., p. 298-9.

89) Ibid., p. 293.



첫째 목적은 개인적인 상황과 신체 구조와 건강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적인 금식에 해당하고, 둘째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기에 개인과 교회 전체에 해당되며, 셋째 목적도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체에게 심판을 내리시기에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통의 덕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예를 들어가며 서로 권면하는 것이 유익한 금식이 되는 것이다.<sup>90)</sup>

### 2.2.2. 권징으로서의 금식과 기도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가 된다. 그래서 금식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에게 허용되지만 사적인 경우보다는 공적으로 자주 이용되며, 어떠한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경우 금식을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할 것<sup>91)</sup>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 이유는 금식을 한 목적은 기도를 더욱 정성스럽게 드리며 기도 방해되는 일을 제거하려는 이유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92)</sup>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보조 수단으로서 금식을 말하는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금식은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고 한다.<sup>93)</sup>

---

90) Ibid.

91) Ibid.

92) Ibid.

93) Ibid.

### 2.2.3. 권징으로서의 금식과 회개

어떤 재앙이 한 지방과 주민에게 닥쳐올 듯한 때에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에 금식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sup>94)</sup>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과도한 자신과 태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기 보다는 겸비한 차림으로 주의 엄격한 벌을 면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며,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sup>95)</sup>”고 말한다.

## 2.3. 권징의 시행

### 2.3.1. 온건한 권징 시행

교회의 권징이기에 엄격한 태도와 함께 온유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권징은 죄인을 고치려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출교의 목적이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신자들 사이에서 나쁜 예를 제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악함을 본받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죄인이 회개를 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엄격함을 넘어서는 일이

---

94) Ibid., p. 295.

95) Ibid., p. 295-6.

되는 것이다.<sup>96)</sup>

고대 교회의 무지함에서 왔던 과도한 엄격으로 인해 종신토록 수찬 정지를 시키고 회개를 용인하지 않고 평생 교회에서 축출하여 권징 대상자가 철저한 절망의 길로 내몰리도록 해서 안 되며 그것은 위험한 처사가 되는 것이다.<sup>97)</sup>

### 2.3.2. 교회 권징에 따른 우리 판단의 한계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온건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들의 수에서 삭제하거나 그들이 이미 멸망한 사람인 것같이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주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분에 넘치는 판단의 권릴 주장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sup>98)</sup>

---

96) Ibid., p. 286.

97) Ibid., p. 287.

98) Ibid., p. 288.

### 3. 특별한 권징

교회 권징에서 특히 성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고대 감독들이 자기 자신들과 자기 계급에 부과한 교회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99)</sup> 예를 들어 성직자는 도박, 환락, 고리대금, 난잡한 무도회 등에 참석하지 말라는 법을 말한다. 이런 교회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 교회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벌칙도 첨가하기도 했으며.<sup>100)</sup> 각 감독에게 주어진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용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기에 속한 성직자들을 다스리며 그들로 하여금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매년 순시하며 종교 회의를 열어서 직책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경고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 값으로 벌을 주는 엄격한 제도아래 성직자들을 관리하였으며, 성직자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의 것을 신자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훨씬 더 엄격하게 처신했다.<sup>101)</sup>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성경에 배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제들의 독신제 문제였다. 로마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결혼을 금하는데 그 성경에 배치되는 제도의 이유로는 일반 신자들과 구별되는 표지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2)</sup> 그리고 독신 생활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단지 기혼자보다 독신자

---

99) Ibid., p. 300.

100) Ibid.

101) Ibid., pp. 300-1.

102) Ibid., pp. 302-3.

다 낫다는 연유에서 사제들의 독신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sup>103)</sup> 그들은 성경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는 근거로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집행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순결하고 티없는 몸으로 성물을 다루기 위해서 아내와 따로 자야 했다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고 있다.<sup>104)</sup>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박으로 칼빈은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 제 일급 정절은 성실한 순결이요, 제 이급은 충실한 결혼 생활이다. 그러므로 둘째 종류의 순결은 결혼 생활의 깨끗한 사랑이다”<sup>105)</sup>라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칼빈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더럽혀온 이 가장 부끄러운 악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sup>106)</sup>라고 표현하였다.

#### 4. 성경적 이해

##### 4.1.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성도를 보호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징의 시행을 설명한다.<sup>107)</sup>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누군가가 교회 전체에 대해 죄를 범하였거

---

103) Ibid., p. 306.

104) Ibid., p. 304.

105) Ibid., p. 307.

106) Ibid.

107) 심효섭, 「권징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에 관한 연구」(2005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pp. 11f.

든,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을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sup>108)</sup>(딤후 5:20)

디모데전서 5장 20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취해질 때마다, 악한 사람들은 정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뒤틀어 놓는다"고 하였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선한 사람들, 곧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준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109)</sup>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두 가지 대답을 줄 수 있다. 첫째는, 교회 구성원들간의 교제로 인해 그들 가운데 있는 치명적인 범죄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가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선 아내와 자식을 허물로 인해 그 아비를 낮추시고,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의 수치를 전체 가족들에게 돌리신다. 더욱이 우리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한 신성모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

---

108) Ibid.

109) Ibid.

라엘 전체에게 임하였다(수 7:1)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처벌하심으로써 잘못된 불순물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가 감염되고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sup>110)</sup>

#### 4.2. 죄인의 회개와 구원

칼빈은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통해 권징이 가지는 또 하나의 목적이 죄인의 회개와 구원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5:5)는 말씀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 같이 권하라”(살후 3:14f) 말씀을 근거로 하여 치리 받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자기의 악행에 대하여 각성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111)</sup>

그러나 칼빈은 또한 “권징의 시행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권징의 중심 대상인 사람이 슬픔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고후2:7)고 하며 이는 권징을 하는 목적이 사람을 고치려는데 있는데 도리어 죽일 수 있기 때

---

110) Ibid., p. 12.

111) Ibid.

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권징의 남용이 가져올 피해에 대한 분명한 지적인 것이다.<sup>112)</sup>

칼빈은 권징이 “온화하고 아버지 같은 태도로 시행됨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또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스스로 인식하여 시정 받은 것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도록 만들려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권징에 대한 세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권징은 ‘징벌’이 목적이 아닌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113)</sup>

칼빈은 권징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화해와 회복의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권징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이 현재보다 잘되기를 희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114)</sup>

---

112) Ibid.

113) Ibid.

114) Ibid.



### III. 결 론

칼빈이 활동했던 종교개혁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평탄한 길을 걸으며 신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 상황에서 올바른 교리를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이 택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엄밀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자로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여겨질 때에는 출교를 시키기까지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자들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고 그 권징을 열쇠권의 실천적 의미로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칼빈의 권징론은 1536년부터 1559년까지 양심에 의한 회개에서 교회의 열쇠권에 대한 실천적 의미로서 출교까지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시기에 교회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양육 받으며 서로에 대하여 충돌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권징은 진정한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권징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경건해지며, 더욱 잘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논문을 마친다.

## 참 고 문 헌

### 1. 국 외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_\_\_\_\_.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lated and Annotated by Ford Lewis Battles

### 2. 국 내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_\_\_\_\_. 「기독교강요」. 김종흡외 3명 옮김. 생명의말씀사, 1986.

루이스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필립샤프, 「교회사전집」, 이길상 외 2명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장수민, 「칼빈의 기독교강요 분석」. 칼빈아카데미, 2005.
- 한국칼빈학회, 「칼빈연구 1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_\_\_\_\_ 「칼빈연구 2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_\_\_\_\_ 「칼빈연구 3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_\_\_\_\_ 「최근의 칼빈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1.
- 헤르만바빙크,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_\_\_\_\_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_\_\_\_\_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IV」.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 3. 논 문

- 남경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박상봉.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채우병.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과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 최병운. “교회개혁을 위한 올바른 권징 연구.”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심효섭. “권징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에 관한 연구.”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장대선, “개혁파 신학의 교회관을 통해 바라본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 “개혁주의 신학대학원 학술교류 논문집”,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엮음, 2006.

#### 4. 주 석

Calvin, John. “성경주석.” 성서원, 1999.